

그래, 떠나서 무엇을 볼 텐가?

이제 나만의 가이드를 데리고 떠나자!

'터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형제의 나라? 2002 월드컵 3.4위전에서 우리를 제친 나라?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나라? 사실 한국전쟁과 축구 관련한 몇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고 나면, 터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많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조금은 낯선 한 국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 예베소·비가모·빌라델비아 등을 포함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바울의 생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열녀를 보낸 곳이 터키에 있다면 어떨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물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터키에 15년을 살면서 현지 여행사 대표이자 터키여행 전문 가이드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희 씨가 쓴 《터키-초대교회를 찾아서》는 성지순례객들은 물론 자유여행, 패키지여행, 배낭여행을 준비하며 터키의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체험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실적·차별된 여행안내서이다. 서점에 나와 있는 여행서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지 등 배낭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실용정보 위주로 꾸며져 있다면, 이 책은 터키를 여행하면서 꼭 들려야 할 명소를, 특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성지 속 지역들을 담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한 일반적 내용은 물론 터키 곳곳과 성지의 관계,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 터키에 살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저자의 깊은 속고개 배어 있다. 그러기에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곧 그 땅에 발을 딛고 터키 최고의 가이드 이영희 씨에게 친절한 안내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든다.

특히 《터키-초대교회를 찾아서》는 '가톨릭 성지=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넘어 성지의 주 무대가 되어 온 지역들을 알리고, 성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획한 《가고픈 성지의 땅》 시리즈의 첫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신앙생활의 한 형태로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역사하심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편집부 실장 이현주

추천평

박노해 (사단)

조선 땅에서 강이 몇몇줄을 날리며 유라시아 대륙을 앞뒤로 치고 도는 여인 이영희! 낯선 땅과 땅을 씹어먹는 두 배 쓴 그녀가 정직한 발로 써 온 책을 펴내다니 반갑고 고맙다. 그가 있어 내 마음은 벌써 아산소리 물리는 어스란 불꽃을 뿜고 있다.

윤병철 (한국 FPSB 회장)

파란만장했던 고대의 중세의 종교, 부침을 거듭한 강대국의 흥망성쇠, 동서양 문화의 교류사를 한꺼번에 간직하고 있는 땅이 터키다. 이 책은 저자가 현지에서 15년간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커다란 알만 그런 문명의 지층을 소개한 것이기에 더욱 실감나고 감동적이다.

이동원 (지구종교회 담임목사)

거고픈 성지의 땅 '터키'는 첫눈에 그 땅의 사상에 빠지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대한 신비는 우리로 아득한 물음부호를 갖게 한다. 하지만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찾는 순례자들의 친구와 성지로 오면 세월을 봉사해 온 이영희 씨의 안내로 우리는 이제 신비를 넘어서 이 땅의 거룩한 실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동형 (경기관광공사 이사,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겸임교수)

'어느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방문지에 대한 최소한의 여행정보를 숙지하고 떠난다면 여행의 결과는 기대할 만하다. 게다가 현지의 좋은 가이드와의 만남은 행복의 차원을 넘어 축복이다. 터키 제일의 가이드 이영희 선생의 저서를 통한 만남으로 터키를 가슴에 품고 여행길에 오른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시형 (정신과 의사,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

공부는 여자 이영희! 그의 안내를 듣고 싶다면 '그 찬란했던 오스만 터키의 영웅'이 눈앞에 선 듯 펼쳐진다. 밝은 일출이었던 그와 함께 돌아온 터키는 경이 그 자체였다. 그는 내가 알아야 편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 물어주었다. 그의 저서는 결코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다.

이호순 (한반도의 한강)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고 누가 안내하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지식과 가치의 깊이가 달라진다.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의 고마움을 잊고 자존단 위간의 미안함과 차를 가는 나라에 대한 실망을 안고 터키에 찾았을 때였다. 터키는 반 토막 세계사에 걸어들어 왔던 내게 내어준 반쪽 세계의 존재와 공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런 깨달음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훌륭한 이영희 씨의 삶이 있는 안내 덕이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터키 친선협회 사무장)

이영희 씨는 터키에서 15년을 살아오면서 터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터키 팬이다. 터키를 깊이 이해하고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이제 이 책으로 터키에 대한 여행 정보는 물론 독특하고 친절한 그의 안내로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터키 안내 책을 한 권 갖게 되었다.

가고픈 성지의 땅 1

초대교회를 찾아서 터키

■가고픈 성지의 땅 시리즈는 '가고픈 성지의 땅'이라는 땅을 넘어 성지의 주 무대가 되어 온 지역들을 알리고, 성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영희 지음 / A5판형 / 360쪽 / 전판액 / 29,000원

차례

- 1부 여행자의 한국, 현재의 나라 터키
 1. 여행에 가는 터키
 2. 터키의 이해와 여행정보
 3. 일과, 터키 제2의 부흥을 꿈꾸며
 4. 일과 주된 둘러보기
- 2부 오스만 터키의 영광이 잠든 이스탄불
 1. 이스탄불 둘러보기
 2. 이스탄불에서의 첫째 날
 3. 이스탄불에서의 둘째 날
 4. 이스탄불에서의 셋째 날
 5.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날
- 3부 구약성서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땅
 1. 바다 깊은 호수가 있는 곳, 반
 2.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도무예타
 3.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시, 다마스쿠스
 4. 신이 되고 인간이 된다는 것, 남쪽 산
 5.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길, 아사드 도시, 하만
 6. 신자리의 땅, 산드루카
- 4부 신약성서 속 인물의 발걸음을 따라서
 1. 기독교의 시작, 초대교회의 교향, 다마스
 2. 신약의 땅, 현인 개 교회
 3. 카파도키아, 기암괴석의 교회를 찾아
 4.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곳, 비잔티움
 5.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곳, 비잔티움
 6.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곳, 비잔티움
 7.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곳, 비잔티움
 8. 성지 속의 바울의 발걸음, 바울의 발
- 5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찾아서
 1. 동양 최대의 성당이 있는 예베소
 2. 한 편의 시와 같은 도시, 비가모
 3. 신들의 도시, 비가모
 4. 사도 바울이 만난 루디에 예언의 교회, 루디에
 5.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진 사데
 6.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 하라-하, 빌라델비아
 7. 주님께 헌정된 도시, 라오디케아
 8. 영사와 아담의 발걸음이 있는 곳, 트로이-아소-트로이

부록

터키 여행 정보/ 여행을 위한 간단한 터키 회화/ 터키에 있는 성지 지명/ 찾아보기

온고지신 溫故知新

세상을 밝히는 생활 속의 동화 두 편

컬트를 소재로 한 《컬트 할머니의 선물》
장식모자를 소재로 한 《꼬꼬모자가 어디서?



시 율 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인숙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그 목소리 톡톡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시므로
나는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내게 머물므로
나는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흔전하게 쫓을 수밖에 없는
나의 눈을 보시니
삶에는 영원히 비치지 않는
모래 그림자 따르고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함일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함일지라도
당신만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함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에서



소설 읽기 2

야훼의 밤

조성기 장편소설

제1부 갈대바다 저편

그렇게 미국놈들이 우리의 입시 공부를 방해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곧 다시 불을 켜고 12시가 넘도록 공부를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산중학교에 합격했다.

합격을 확인하고 난 후,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남포동·광복동 거리를 활개치며 다녔다. 용두산공원에 올라가 바다를 향하여 오줌을 싸기도 하였다. 그때 거리에는 곳곳마다 혁명 공약이 나붙어 있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우리는 그때 아직 민생고가 무엇인지 그다지 실감할 수는 없었다. 어른들은 혁명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만 우리는 부산중학교에 합격한 것보다 더 큰 혁명은 없었다.

우리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만 했다. 우리를 중대부분은 부산고등학교에 시험을 보고 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였다. 나는 부산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자신임을 깨닫고 서울로 입학 시험을 보러 올라왔다. 그것도 경기고등학교 수석 합격을 목표로 올라온 것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소금 주머니를 들고 승강구 쪽으로 자주 나가 소금을 뿌려 대었다. 내 코복 어깨 안쪽에도 작은 소금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그때 정말이지 맨 처음 서울에 올라온 것이었다. 늘 그림에서만 보던 남대문의 모습이 너무도 정답게 느껴졌다. 아버지와 나는 경기고등학교 근처 여관에 입시로 묵었는데, 아버지는 어디 다녔다가 열근히 술에 취해 돌아와서 여관집 아주머니의 손을 슬쩍 잡아 보곤 하였다.

입시 전날 밤, 시험준비에 온 것을 정리했다. 그런데 열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뭐라고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러다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고 좀 있다가는 혈떡거리는 소리가 났다. 결국 어머니 소금 주머니 덕분에 시험에 합격은 하였지만 그 여관의 분위기와 아버지의 술주정 등으로 인하여 수석은 못 하였다.

그래도 경기고등학교 합격의 영광을 안고 부산으로 내려올 때 나는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세상을 다 소유한 나를 소유하고 어머니는 또 그러한 아버지를 소유하고 동생들은 그러한 어머니를 소유하여 우리 모든 식구들은 세상을 다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대학 입시가 남았다. 대학 입시 때는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와 막내 남동생까지 올라왔다. 서울법대 담배라과 정문에는 옛가락들이 들려붙었다. 어머니는 부작(符箓) 한 장을 내 품속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적어도 열 과목은 되는 그 지루한 시험을 이들 동안이나 보았다.

그 무렵 김신조 일당이 북한에서 내려와 세검정 자하문을 거쳐 청와대

로 직행하려다 실패한 직후에서 온 거리는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아버지의 표정이 특히 긴장되어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 아버지, 어머니, 막내 동생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때 미아리고개 너머에서 외할머니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합격을 확인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기로 하였다. 외할머니와 자취를 하고 있었다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외할머니가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한 집을 지나 골목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집에서 역시 방 한 칸을 전세로 얻어 사용하고 있었다. 식사 때만 외할머니 방이 있는 그 집으로 가서 외할머니가 차려 놓은 밥을 먹었다. 외할머니는 살바느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공부를 위해서 따로 방을 그렇게 얻은 것이었다.

내가 있는 그 집은 눈이 먼 봉사 할아버지가 40대 가까운 한 아내를 가정부로 데리고 사는 집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 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광복과 함께 눈이 멀었다고 했다. 해방 직전에 어떤 일본 관리가 자기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그 일본놈이 목욕탕 물에다가 무슨 약을 탔을 것이라고 늘 말하였다.

그 외동딸은 주로 월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하는 가수요 무희로서 돈을 꽤 벌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의 부엌과 연결된 아래채를 전세로 얻고 있었는데 그 방에서 초조하게 합격 소식을 기다렸다. 그런데도 합격이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입시의 연속이었고 합격의 연속이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장거리 전화로 자꾸만 내가 수석을 하였느냐고 묻고 있었다. 여전히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였다. 수석을 하지 못하고 합격만 했다고 하니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었다. 나도 은근히 화가 났다. 합격 축하는 해 주지 않고 수석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다니, 나는 그만 전화를 끊어 버렸다.

사실 대학 입시는 다른 입시 때와는 달리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 고3 때 늘 휴학할 생각만 하고 산과 들로 혼자 쓰다듬어 (무녀도)와 같은 소설을 구상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고1 때 전교 일등한 실력과 고2 때 반에서 일등한 실력이 고3 기간 동안을 겨우 유지해 주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이전의 나 같은 줄 알고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주인 집 거실을 나와 바깥으로 나갔다.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도 나는 외할머니 있는 데로 가지 않고 미아리고개 쪽으로 올라갔다.

—계속

※소설읽기 1 (레프트 비하인드)에 이어 작가 조성기의 성장소설인 《야훼의 밤》을 소설읽기 2로 연재합니다.

책방리뷰



●영동문고 종로점과 교보문고 강남·광화문점에서 진행하였던 기고본 성서의 원1 (타키-초대 교회를 찾아서)와 영동문고 종로점에서 있었던 사랑의 초대 2005 합본의 동영상과도 모습.



기독교 소설의 지평을 넓혀 가는 홍성사의 대표소설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에 기초한 홍성사의 소설은 그 속에 신앙이 주는 은혜와 기쁨만이 아닌 깊은 회개, 영혼의 고뇌, 자의의식에 대한 반성, 영혼의 성령의 인도, 영혼의 자유, 영혼의 희망 등 우리의 인생사가 가득 담겨 있다. 작품을 읽는 이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맛볼 수 있다.

NEW



엘리사의 지킴
'모범적인' 신앙서적에 식상한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책!

성경 시대에만 머물던 관습적인 기독교 문학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현대까지 끌어올려 우리 시대의 고민을 나누어줄 이연철 장편소설!
이연철 지음 / 208면 / 8,000원

국내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정훈 지음
양장 / 280면 / 11,000원



망글에서 오다
김성일 지음
380면 / 15,000원



망글로 가다
김성일 지음
380면 / 15,000원



제국과 천국 上·下
김성일 지음
각권 280면 / 11,000원



원곡의 천도사
김성일 지음
280면 / 11,000원



홍수이후 1~4
김성일 지음
각권 288~312면 / 15,000원



홍수이후 1~5
김성일 지음
각권 300면 내외 / 17,800원



장화전
정연희 지음
412면 / 15,000원



내 잔이 넘치니
정연희 지음
404면 / 15,000원



야훼의 밤
조성기 지음
제1부-286/208면, 제2부-188면 / 15,000원



요셉의 회상
지유철 지음
397면 / 15,000원

해외소설



심록
연도 수사주 지음
공문채 옮김
양장 / 312면 / 11,000원
보급판 / 312면 / 6,800원



레프트 비하인드
윌리엄 미치 지음
공문채 옮김
504면 / 11,000원



소설 미러링 루터 1·2
레그 그레프 지음
공문채 옮김
각권 324면 / 304면 / 8,800원



진노의 전
메리 글래스 지음
정영진 옮김
양장 / 640면 / 28,800원

신간 4 **가고픈 성서의 땅 1**

터키

a new
신간 book

세 아이의 아빠가 쓴 자녀양육 원칙

자녀마음을 여는 열쇠

THE KEY TO YOUR CHILD'S HEART

두란노아버지학교 김성목 장로,
방송인 선·정혜영 부부,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추부길 목사 추천!

말안 듣는 아이, 이유 있다!

- '왜 공부하지 않을까?'
- '왜 자기 방 하나도 정리하지 못할까?'
- '위험한 행동인 줄 알면서 왜 계속할까?'
- '엄마와는 친밀한데, 아빠와는 왜 멀어질까?'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저명한 가정사역자 게리 스몰리는
이 모든 것이 자녀가 마음을 닫아 버린 데서 온다고 진단한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아빠들을 위한 책.

www.hsbooks.com/key

게리 스몰리 Gary Smalley 지음

심영우 옮김/밀음의 글들 232/A5신변형/240면/본문 2색/9,500원

게리 스몰리 Gary Smalley

가정사역 전문가, 패밀리헤리티지 선교회(Family Heritage Ministries) 대표. 《축복의 언어》(The Blessing, 프리셉트),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의 힘》(The Hidden Value of A Man, 오단출판사)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다. 아내 노마 스몰리와 사이에 장성한 세 자녀를 두고 있다.

T. 02-333-5161 F. 02-333-5165 <http://www.hsbooks.com>

홍성사.

근간▶▶▶

교회 다니는 십대, 이것이

십대들이 던지는 까다로운 질문 100가지

궁금하다!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십대를 대하는
모든 교사의 필독서!

《교회 다니는 십대, 이것이 궁금하다!》에서
다루는 십대들의 궁금증

- *신이 진짜 있나요?
_복음, 예수님의 존재 유무와 천조에 관한 것
-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틀렸다고요?
_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짜론
- *영접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건가요?
_구원의 문제
- *성과 결혼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_십대, 십대의 결혼
- *생명윤리, 꼭 알아야 하나요?
_내태, 인위사, 유전자 복제, 입양, 기형 출산
- *왜 교회에선 동성애를 정죄하죠?
_교회와 세상의 시각 차이
- *내 인생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요?
_인생과 진로



찰스 콜슨·해럴드 피케트 지음_홍종락 옮김



찰스 콜슨 Charles W. Colson

전 세계 교도소선교회의 모체가 된 교도소선교회 설립자이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칼럼니스트, 문필가, 연설가. 1974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1993년에 탤물렌상 수상. 저서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러빙 것》, 《이것이 교회다》(이상 홍성사) 등이 있다.